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417>

JCCT 2022-1-48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이주영\*

Lee, Joo Young\*

**요약**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9년 5월1일부터 5월 16일까지 조사하여, 18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WIN 28.0통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44점이고, 임상수행능력의 평균은 3.82점,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은 3.69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셀프리더십( $r=.221, p=.002$ )과 임상수행능력( $r=.262,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 $r=.050, p=.494$ )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셀프리더십( $\beta=.251, p<.001$ )과 임상수행능력( $\beta=.208, p=.003$ )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0.4%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1 to May 16, 2019, and 18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and analyzed through SPSS/WIN 28.0. The average of the participants's self-leadership was 3.44 points, the average of clinical competence was 3.82 points, and the average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3.69 poi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leadership( $r=.221, p=.002$ ) and clinical competence( $r=.262, p<.001$ ), and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erformance( $r=.050, p=.494$ ) showed no correlation. The variable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ere self-leadership( $\beta=.251, p<.001$ ) and clinical competence( $\beta=.208, p=.003$ ),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10.4%.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improve self-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정희원,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31,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jylee@gch.ac.kr

Dep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Korea

## I. 서 론

### 1. 연구설계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에서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간호사의 기본역할과 간호 기술을 습득하고 간호 대상자의 상태와 반응을 파악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대처하는 수행능력을 획득한다[1][2]. 또한 임상실습은 단지 기술의 체험이 아니며, 간호대상자의 입장에서 간호 문제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함양과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다[1]. 그러나 간호교육의 현실은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의 연계성이 부족하고[3] 간호대상자의 양질의 간호요구와 환자의 권리와 안전으로 인해 간호 대학생들은 활력징후 등의 단순한 활동과 관찰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4]. 이러한 현상은 이론적 지식과 임상현장 실무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간호활동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실제 간호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1]. 따라서 임상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간호 과정 및 그 직업에 대한 직업적 관점을 말하며, 간호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갖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신념을 말한다[5].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전문직관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6][7].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은 경우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이 저하되고 졸업 후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이미지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9].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의 내용, 지도, 환경, 시간, 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과와 실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셀프리더십은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14] 개인에 따라 그 잠재력에 차이가 있고 학습이나 훈련으로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는 개념이다[15]. Cho, Kang과 Lim[16]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유도하고, Park[17]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훈련이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셀프리더십이 함양되면 임상실습 시 자신에 맞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서 실습에 임할 수 있어 임상수행능력이나 임상실습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은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적절한 지식, 기술, 판단, 태도를 통해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0]. 이는 지식과 기술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과정, 기술, 교육, 대인관계, 협력, 전문직 발전 등의 여러 능력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이다. 임상수행능력이 강화되면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간호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지고 적극적인 실습 참여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입학동기, 학업성적, 학년, 학과만족도 등이 임상수행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11][12],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13]. 임상수행능력에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1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선행연구에는 긍정적 정서와 셀프리더십[18],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12],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19]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킬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연구가 필요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여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실습 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수행

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를 알아본다.
- 대상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 대상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임상실습만족도에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수행한 경상북도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료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예측요인 11, 효과 크기는 낮은 수준인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표본 수는 178명으로 중도 탈락을 고려하여 19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195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누락이나 이중 표기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9부를 제외한 186부(95%)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20]가 개발하고 Kim[2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 6개 요인으로 각각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써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1]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1이다.

#### 2)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Lee, Kim, Yoo, Hur, Kim과 Lim[22]이 개발하고 Choi[2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임상수행능력을 간호과정(11문항), 간호기술(11문항), 간호교육/협력관계(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6문항), 전문직 발전(9문항) 등의 5개 영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써 ‘매우 못 한다’ 1점에서 ‘매우 잘 한다’ 5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23]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5이다.

#### 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24]이 개발하고 Lee, Kim과 Kim[25]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실습교과(3문항), 실습내용(6문항), 실습지도(9문항), 실습환경(7문항), 실습시간(3문항), 실습평가(3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4이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46(24.7)	3.25±0.38	-1.586	3.69±0.60	-1.72	3.51±0.75	-1.852
	Female	140(75.3)	3.35±0.34	(.115)	3.85±0.54	(.086)	3.74±0.61	(.068)
Age	≤ 23	154(82.8)	3.32±0.36	0.027	3.84±0.54	1.720	3.67±0.66	-0.729
	≥24	32(17.2)	3.32±0.33	(.987)	3.66±0.61	(.087)	3.76±0.59	(.467)
Religion	Christian <sup>ac</sup>	53(28.5)	3.37±0.37		3.97±0.57		3.65±0.68	
	Catholic <sup>b</sup>	69(37.1)	3.31±0.35	.352	3.75±0.52	9.119	3.65±0.67	.831
	Buddhism <sup>c</sup>	22(11.8)	3.30±0.27	(.788)	3.33±0.44	c<a,b,d	3.62±0.76	(.479)
	None <sup>d</sup>	42(22.6)	3.31±0.37		3.97±0.51		3.83±0.51	
Residence	Home	66(35.5)	3.43±0.37	2.645	3.39±0.53	2.176	3.79±0.66	1.406
	Dormitory	84(45.2)	3.26±0.34	(.074)	3.76±0.56	(.116)	3.57±0.62	(.248)
	Own board	36(19.4)	3.28±0.44		3.75±0.56		3.69±0.66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sup>a</sup>	92(49.5)	3.29±0.38	1.280	3.81±0.56	4.921	3.66±0.65	11.261
	Moderate <sup>b</sup>	80(43.0)	3.37±0.33	(.280)	3.80±0.56	(.008)	3.84±0.55	(<.001)
	Bad <sup>c</sup>	14(7.5)	3.33±0.26		3.40±0.53	c<a,b	2.99±0.79	c<a,b
Academic achievement	High <sup>a</sup>	9(4.8)	3.19±0.28		3.37±0.37		3.77±0.53	
	High-Middle <sup>b</sup>	73(39.2)	3.34±0.34	.373	3.75±0.47	7.004	3.85±0.59	2.302
	Middle <sup>c</sup>	53(28.5)	3.34±0.30	(.828)	3.70±0.60	(<.001)	3.52±0.69	(.060)
	Middle-Low <sup>d</sup>	43(23.1)	3.31±0.44		4.12±0.56	a,b,c<d	3.62±0.68	
	Lower <sup>e</sup>	8(4.3)	3.34±0.36		4.14±0.36		3.58±0.85	
Application motivation	High school grade <sup>a</sup>	20(10.8)	3.42±0.21		3.61±0.51		3.82±0.74	
	Aptitude and interest <sup>b</sup>	49(26.3)	3.33±0.40		3.91±0.54		3.85±0.47	
	Job <sup>c</sup>	60(32.3)	3.31±0.32	.454	3.80±0.51	2.132	3.51±0.70	3.166
	Inducement of parents or teachers <sup>d</sup>	49(26.3)	3.30±0.41	(.770)	3.76±0.65	(.079)	3.62±0.70	(.015)
	Impression during hospital treatment <sup>e</sup>	8(4.3)	3.38±0.28		4.2±0.36		4.13±0.26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는 전체 186명으로 성별은 여자가 140명(75.3%)이었고, 연령은 23세 이하가 154명(8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교는 천주교가 69명(37.1%)를 차지하며, 거주 형태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이 84명(45.2%)로 가장 많았다. 본인이 지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은 '좋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92명(49.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나쁘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4(7.5%)에 불과했다(table 1).

#### 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최대 5점에 3.44±69점이고, 임상수행능력의 평균은 3.82±56점,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은 3.69±6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

셀프리더십은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나지 않았다. 임상수행능력은 종교에서 불교(3.33±0.44)라고 답한 학생들이 다른 종교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3.81±0.56) '중간이다'(3.80±0.56)라고 답한 학생이 '나쁘다'(3.40±0.53)라고 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습성적이 중위권 이상의 학생보다 하위권 학생의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입학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병원 방문 시 인상이 깊어 선택한 학생(4.13±0.26)들이 취업이 잘 돼서 선택한 학생(3.51±0.70)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1).

표 2.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수준  
 Table 2. Levels of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6)

Variables	M±SD	Range
<b>Self-leadership</b>		
Self-expectation	3.44±.69	
Rehearsal	3.43±.75	
Creating goal	3.50±.63	
Self-compensation	3.51±.71	1-5
Self-criticism	3.27±.85	
Constructive thinking	3.36±.79	
Total	3.42±.47	
<b>Clinical competence</b>		
Nursing process	3.72±.63	
Nursing technology	3.71±.63	
Education and cooperation	4.26±.71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3.76±.72	1-5
Development to the specialist	3.72±.69	
Total	3.82±.56	
<b>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b>		
Clinical practice course	3.83±.85	
Clinical practice contents	3.62±.72	
Clinical practice instruction	3.64±.77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3.77±.73	1-5
Clinical practice time	3.61±.84	
Clinical practice evaluation	3.74±.88	
Total	3.69±.66	

4.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

임상실습만족도는 셀프리더십( $r=.221, p=.002$ ), 임상수행능력( $r=.262,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 $r=.050, p=.494$ )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5.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선택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성과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여 회귀분석의 조건 충족을 확인하였으며, 각 변수간의 공차한계는 .992~1.000, VIF는 1.000~1.008로 독립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셀프리더십( $\beta=.251, p<.001$ )과 임상수행능력( $\beta=.208, p=.003$ )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0.4%로 나타났다(table 4).

표 3. 임상실습만족과 관련요인 간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of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86)

Variables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leadership	1		
Clinical competence	.050(.494)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21(.002)	.262(<.001)	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 4학년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 중 평균 3.44±.66점이었다. 이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3.64점[18], 3.56점[26]보다 낮다.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3.60점[11], 3.60[19]보다는 낮고, 3.07점[27]보다는 높았다.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자기보상, 목표설정, 자기기대, 리허설, 건설적 사고, 자기비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Yang[26]의 연구와 Park[28], Seomun, Chang, Cho, Kim과 Lee[2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능력은 좋으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회로 전환하는 긍정적 사고 과정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의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만족도, 선택동기 등에서 차이를 보였고[19][26][27], 본 연구와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선행연구[30]도 있었다. 셀프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으로 누구나 학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건설적 사고와 자기비판 영역의 부족함을 개선할

표 4.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요인

Table 4. Factor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86)

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beta$	t	P	B	S.E	$\beta$	t	P
(Constant)	2.523	.321		7.864	<.001	1.589	.444		3.580	<.001
Clinical competence	.306	.083	.262	3.678	<.001	.294	.082	.251	3.601	<.001
Self-leadership						.287	.096	.208	2.981	.003
	$R^2 = .266$ Adjusted $R^2 = .066$ F(p)=14.021(<.001)					$R^2 = .338$ Adjusted $R^2 = .104$ F(p)=8.960(.003)				

수 있고, 긍정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 중 평균 3.82±.56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평균 3.42점[1], 3.55점[12], 3.35점[14]보다 높고 3.93점[31]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교육/협력, 대안관계, 전문직 개발, 간호과정, 간호기술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협력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Kim과 Lee[1], Sung[32]의 연구가 같고, 간호기술이 가장 낮은 것은 Kim과 Lee[1], Choi[3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대상자 간호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은 교육부분에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간호과정과 간호기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임상실습이 대부분 활력증후를 제외하고 관찰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 임상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69±.6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3.30점[18], 3.36점[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대인관계 능력과 학과 선택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하는 대인관계 능력과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이를 보인 Kwon[27]의 연구와 학과만족도와 지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에 따른 차이를 보인 Yang과 Moon[26]의 연구, 지각하는 대인관계 능력, 학업성취도, 학과선택 동기 등에 차이를 보인 Yoo[1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대인관계 능력에 '부족'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학과선택에 있어 취업이 잘 되어 선택했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선택한 학생들이 학과에 흥미를 갖고 자의로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 선발 시 학과에 대한 흥미 및 관심도를 고려하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학생들의 학과 적응과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실습교과, 실습환경, 실습평가, 실습지도, 실습내용, 실습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Kim과 Lee[1]의 연구에서 실습교과와 실습환경의 만족도가 높았고 실습지도,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결과와 유사하고 Lee와 Kim[18]의 연구에서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과 일치한다. 실습교과와 실습환경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학과마다 우수한 실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증평가 등을 통해 실습교과를 정리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실습지도와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학생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임상실습지도자의 지도보다는 실습병동의 상황에 따라 실습지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습병동에 간호대학생을 전담하는 프리셉터가 지정되고 실습내용에 맞는 효율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Yang과 Moon[26]의 연구와 Lee와 Kim[18]의 연구와 일치한다. Yang[34]의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과 Lee[1]와 Yoo[14]의 연구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일치한다.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과 임상수행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실습에 임하는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셀프리더십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Yang과 Moon[26]과 Han[19]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임상수행능력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Kim과 Lee[1], Jung[35]의 연구와 일치한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7]이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과 간호활동 과정 및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갖게 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하는 전문직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로[36] 실습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 때부터 간호전문직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대인관계능력 개발, 빠른 학과 적응을 통한 학과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학과적응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의사소통 기술 배양 등 학과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리더십 프로그램, 긍정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핵심기본간호술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V.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2학기 이상 경험한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종교와 지각하는 대인관계 능력, 학업성취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고, 임상실습만족도는 지각하는 대인관계 능력과 학과선택 동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의 개발과 임상수행능력의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실습환경 구축, 실습교과 과정의 편성과 실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셀프리더십, 임상실습수행능력을 규명하여 추후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 자체 부속병원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이 대상이었으므로 모든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와 본 연구를 근거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Kim GE, Lee BY.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 no.10 (2014):885-896.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885>
- [2] Shin SO. "Affecting Factors of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 no.6 (2018) : 85-91. doi: <https://doi.org/10.22156/CS4SM B.2018.8.6.085>
- [3] Choi KO, Jo HS, Kim JY, Kim BY, Jang SJ. "The Teaching Effectiveness of Preceptorship and Satisfaction of Student for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8, no2 (2002) : 73-83.
- [4] Cho MH, Kwon IS.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 no.2 (2007) : 143-154.
- [5] Weis, D., & Schank, M. J.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2, no2 (2000) : 201-204
- [6] Cho KS.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 no.2 (2020) : 142-152. doi: [10.5953/JMJH.2020.27.2.142](https://doi.org/10.5953/JMJH.2020.27.2.142)
- [7] Lim KM, Cho EJ.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 no.4 (2016) : 556-56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56>
- [8] Cho KJ, Kang HS.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ion of professional

-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 no2 (1984) : 63-74
- [9]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 no2 (2004) : 219-31.
- [10] Hur HK, Roh YS. “Effects of a simulation based clinical reasoning practice program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 no5 (2013) : 574-584.
- [11] Kim YJ, Lee SB, Jang CE, Choi JK and Hwang HJ. “The Effect of Adversity Quotient Profile, Self-leadership and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on the Clinic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3, no.3 (2019) : 75-84. doi: <https://doi.org/10.34089/jknr.2019.3.3.75>
- [12] Park HS, Han JY.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no.3 (2015) : 695-706.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5.26.3.695>
- [13] Yoo HS.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 no.2 (2015) : 1129-1144.
- [14] Won, HJ, & Cho, SH. . “A review of research on self-leadership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 no3 (2013) : 382-393.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3.19.3.382>
- [15] Kang YS, Choi YJ, Park DL, Kim, IJ.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 no2 (2010) : 143-151.
- [16] Cho EJ, Kang JM, Lim KM.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typ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 no.3 (2017) : 94-10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3.94>
- [17] Park JH.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on Empowerment, Self-directed Learning, and Happines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 no.7 (2019) : 61-6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7.61>
- [18] Lee SN, Kim JA.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ffectivity, Self-Leadership,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ffectivity, Self-Leadership,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22, no.2 (2016) : 125-13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2.125>
- [19] Han SH.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 no.7 (2019) : 593-602.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7.053>
- [20] Manz, C. C.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Prentice Hall, New Jersey. 1983
- [21] Kim, H. 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2
- [22] Lee WH, Kim CJ, Yoo, JS, Hur HK, Kim KS and Lim, SM.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s” *Yonsei Journal of Nursing Science*, 13, (1990) : 17-29.
- [23] Choi M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 [24] Cho GJ, Kang HS. “The correl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 (1984) : 63-74.
- [25] Lee SH, Kim SY and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 (2004) : 219-231.
- [26] Yang MY and Moon SY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 no.2 (2011) : 216-225.
- [27] Kwon SM.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Style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4, no.4 (2020) : 27-36. doi: <https://doi.org/10.37181/JSCS.2020.4.4.027>
- [28] Park MA.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9
- [29] Seomun GA, Chang SO, Cho KH, Kim IA. & Lee



- SJ. "The 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 no1 (2006), 151-158.
- [30]Ko GY, Park SO, Park SJ, Park BS, Kwak KH, and Park BJ.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ir Communication Capabilities, Majority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Korean Society of Nursing Research* 3, no.1 (2019) : 41 - 49. doi: <https://doi.org/10.34089/jknr.2019.3.1.41>
- [31]Lee KE, Ha NS, and Kil 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 no.3 (2000) : 571-583.
- [32]Sung MH.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7, no.1 (2010) : 90-98.
- [33]Choi E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 no.1 (2009): 15 - 21.
- [34]Yang JJ, "The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 no.1 (2019) : 443 - 449. doi : <https://doi.org/10.17703/JCCT.2019.5.1.443>
- [35]Jung JS,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 no.1 (2012) : 53 - 61.
- [36]Weis, D., & Schank, M. J. (2000).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2, no. 2 (2000) : 201-204.